

"국적선사간 'EQ Pool'운영이 궁극 목표"

인터뷰/ 전병진 '국적선사 컨장비관리협의체'회장

"국적선사간 'EQ Pool'운영이 궁극 목표"

공신력있는 기구로 설립위한 준비 한창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산하에 작업반
장비교환 사용은 비용절감의 핵심활동

국적선사 11개사가 모여 컨테이너장비관련 협의기구인 가칭 '국적선사 컨테이너장비관리 협의체'를 발족하고 오는 3월중 공식 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국적선사 컨테이너장비관리협의체'는 국적선사들간의 컨테이너장비 관리와 수리, 임차 등 관련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동향과 정보공유는 물론 장비교환 사용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비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동협의체는 한진해운이 회장사로 활약하며 현대상선과 고려해운, 동남아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동영해운, 범양상선, 동진상선, 천경해운 등 11개 국적선사 장비관련 책임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적선사 컨테이너장비관리협의체'의 회장사인 한진해운의 전병진 장비관리담당 상무를 만나 동협의체의 발족 취지와 경위,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1985년 한진해운에 입사해 출근 컨테이너장비부문의 부서에서 근무해온 전병진상무는 ISO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기회를 통해 국제적 견문을 통해 선사에 있어 효율적인 장비운영이 회사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전문>

□ '국적선사 컨테이너장비관리협의체'의 발족취지 및 경위.

"지난 97년 IMF시절 국내지역 장비부족으로 많은 수출업체들이 선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컨테이너장비의 적기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동 협의체 발족회의를 통해 국적선사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컨테이너관리의 유연화와 전문화, 표준화를 실현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업계의 이슈가 돼 있는 전자씨일(Seal) ISO 표준화 진행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동안 한국컨테이너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대표로 국제회의에도 2번씩 참가해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컨테이너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인데, 표준화는 각국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 기존의 장비와 다른 규격으로 표준화 되면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제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원양선사의 경우 선사들끼리 협력체제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 국적선사들도 협

의체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식 설립시기는 언제쯤

"조직을 정비하고 3월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설립되면 공신력있는 협의체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 산하의 협의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기술표준원에 의사타진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구가 돼야 국제사회에서 추진되는 ISO 표준화 등에 국적선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본인이 한국컨테이너전문위원회 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이같은 일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해볼 방침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장비관련 사안은.

"이슈화돼 있는 것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전자씨일(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것과 유럽에서 주도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불시 안전검사 등이 해당된다. 전자씨일에 대한 압력은 1차적으로 선사에 의해 부결됐지만 향후에 또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자씨일이 표준화 시행되면 선사는 연간 수백만달러의 추가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에도 전자씨일 제조사 관계자의 방문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검사를 불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불황기에는 컨테이너임대사들의 임차정책도 선사에게 불리한 임차조건을 달아 까다롭게 바뀐다. 이같은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동협의체의 향후 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동협의체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분과위원회는 △컨테이너 사양 분과위원회 △컨테이너 보수관리 분과위원회 △장비교환 사용 분과위원회 △장비운영에 관한 일반분과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다.

컨테이너사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자재와 치수, 디자인 등 각기 다른 컨테이너의 사양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유럽선사들은 이미 컨테이너사양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관리분과위원회는 각기 다른 보수관리 전산시스템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수리요율 등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비교환사용분과위원회는 선사간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선사가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역내 선사들간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 협의체를 활동을 통해 원양선사도 참여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비운영분과위원회는 free day가 지난 컨테이너장비의 이용료를 제대로 받은 것과 요율의 통일 등을 시행하는데 협력하는 일을 맡게 된다. 특히 하주가 빌려가 컨테이너를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액도 각기 다르다. 이같은 비용의 표준화도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손상시켜 놓고 발뺌하는 하주들에 대해서는 악덕하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국적선사 컨테이너장비관리협의체'의 운영계획은

"첫미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컨테이너장비관리운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박회사의 취약부분중 하나가 장비기술분야이다. 동협의체가 설립이후 제역할을 하게 되면 선사의 모든 장비를 'EQ Pool'화해 장비이용의 효율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미주지역에서는 선사들이 '샤시 풀'을 운영해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국적선사간의 'EQ Pool' 시행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협의체 설립으

로 그 토대를 마련해 놓으면 다음세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 한진해운의 컨장비관리 시스템에 대해.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Senator Line을 포함해 36만대의 컨테이너와 2만 7000 대의 샷시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보유장비의 증가와 효율적인 장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에 따라 한진은 종합정보시스템인 NIS (New Information System)내에 장비관리 및 보수 (M&R : Maintenance and Repair) 시스템을 개발, 전 세계에 걸쳐 표준화된 장비관리 체제를 운영 중이며, 최고 사양의 신형 컨테이너 도입과 재생작업등 철저한 장비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 컨테이너임대사협회 (IIC) 에서 주관하는 '국제 컨테이너 장비관리 자격시험'시행 첫 해인 84년에 전병진 장비관리팀장이 국내 최초로 자격증을 획득한 이래 총 2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 2002년 3월 국내에서 첫 시행된 '국제 샷시 검사 자격시험'에서도 한국 해운회사 최초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국제장비관리자격증 최다보유 선사로 전문성을 공인 받고 있다."

[2004-02-12 이인애]

[기사목록](#) [프린트](#) [→ 뒤로](#) [가+](#) 크게보기 [가-](#) 작게보기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해운신문 주식회사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해운신문(주)

대한민국 제1의 해운매체 | 100-230 서울 중구 수표동 56-9 대동B/D 303 TEL 02)2285-5571~4
Copyright 1996-2005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